



다시 일어서는

홍성지부

취재 : 최승덕



지부일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운영회의

충남 홍성은 옛부터 서부 충남의 교통중심지이며, 돼지의 주 생산단지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전국 돼지의 2.5%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홍성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광천자돈 시장으로도 유명했던 지역이다.

홍성지부(지부장: 전창수)는 이 지역 양돈인들의 자생적인 모임이었던 양돈계가 주축이 되어 1983년 1월 25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홍성지부는 이 지역이 양돈의 주산지답게 1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창립 회원을 가지고 화려한 첫 발을 내디디었다.

그러나 출범할 때의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회원이 17명까지 떨어지는 늪에 빠져 들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과 조적관리의 허술한 점이 계속됨에 따라 회원들의 탈퇴가 줄을 이어 해산 직전까지 가는 급박한 상황에 까

지 이르게 되었었다.

이에 뜻있는 몇몇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부 재건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우선, 협회의 공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탈퇴했던 회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인내력을 갖고 정성을 쏟은 댓가는 곧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는 회원수가 100% 이상 급신장하는 성과를 올려 지난 2월 9일 열린 총회에서 회원확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회원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전창수 지부장은 “협회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와 닿는 이익은 없지만 협회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양돈농가가 얻는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요즘은 문제가 되고 있는 폐수관리법 시행령(안)만 하더라도 협회가 없었다면 양돈농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양돈농가의 권익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회원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라고 설명하고,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 만큼의 성과는 나타난다고 말한다.

실질적인 살림꾼인 김병문 총무도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지부는 수익성 사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되도록 지부에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원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살림이지만 느끼는 정은 더 따뜻해

홍성지부는 수익성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살림을 여간 알뜰하게 하지 않고서는 적자가 나기 때



지부재건을 다지는 전정수 지부장

홍성지부 회원들은 끈끈한 정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동참, 해결하는 역량 보여줘

문이다.

연료비 등은 회원중에 몇몇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해결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어려움은 상당히 많다. 그런 관계로 연탄난로를 퇴근때는 끄고 아침에는 다시 붙이기를 반복하는 것 짬은 수고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부 회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부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요인은 못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회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절로 동참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지난 해 세미나 개최때도 예산 부족으로 준비하기 전에는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행사를

치르고 나니 오히려 몇 십만원이 남을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신용순 회원은 홍성지부를 이렇게 자랑한다.

“우리 지부는 비록 절정기때 보다는 회원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머지 않아 곧 많은 회원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원래 순박한 사람들이라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협회의 필요성과 공신력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김용철 회원도 맞장구친다.

“회원들이 많이 탈퇴할 때는 협회의 공신력에 회의를 가졌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공신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단체든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지부는 현재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지부

몇년전만 해도 '홍성돼지' 하면 '똥돼지'로 인식돼 값을 적게 받았으나, 지금은 종돈개량이 이루어져 높은 값을 받고 있다.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침체했던 홍성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데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전창수 지부장은 자기 일은 뒤로 미뤄 놓은 채 지부 활성화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양돈농가를 찾아다니며 협회 가입을 권유하고, 사양기술을 지도하며, 새로운 정보 전달에 성의를 보여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 지부장을 보좌하는 김병문 총무도 홍성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다. 정열적인 활동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지부를 만들겠다는 남

다른 의욕에 가득차 있다.

“지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부쩍부쩍 늘 때는 저절로 힘이 솟아 오릅니다. 가끔 협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종돈개량으로 홍성 똥돼지는 옛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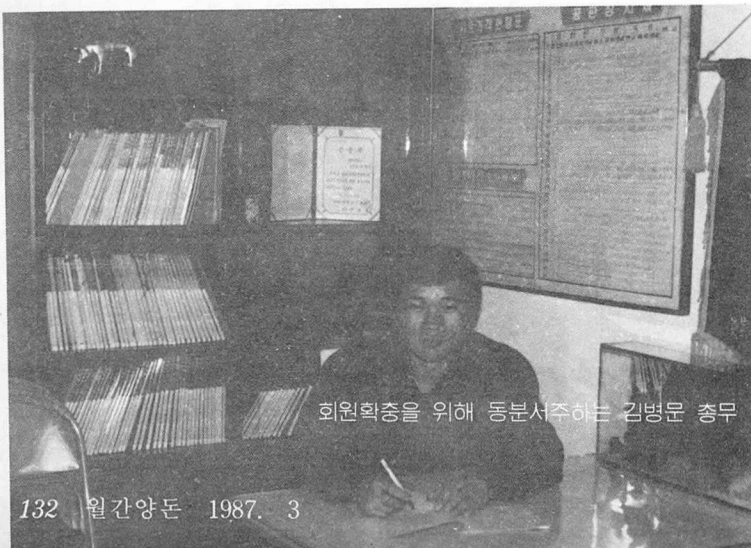
그동안 홍성 지역은 돼지가 많이 생산되면서도 개량되지 못해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홍성종돈을 비롯한 몇 개의 종돈장이 있어 어

는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개량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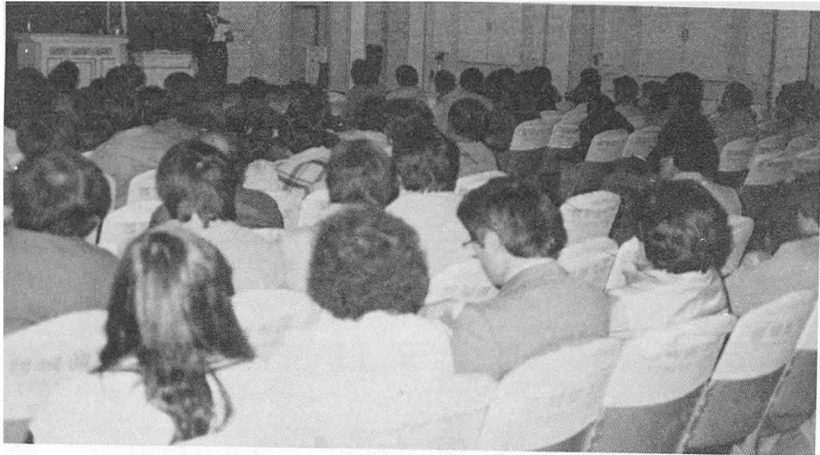
“그동안 홍성 돼지가 똥돼지라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돼지 주 생산지로서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똥돼지로 유명하게 되어 도매시장에 가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더군요.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기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지역 돼지보다도 더 개량되었다고 자부합니다”고 항변하는 전창수 지부장은 이런 불이익을 하루빨리 없어도록 잘 홍보해 달란다.

사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새끼돼지 시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이 지역 돼지가 전국적으로 안가 있는데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새끼돼지 시장이 없어질 정도로 잘못 인식되어 졌다.

홍성 지방 돼지개량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김병문(홍성종돈 대표) 총무는 “사실, 홍성 지방은 이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개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돼지 생산의 주산지로서 부끄럼없는 좋은 돼지가 출하될 겁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회원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병문 총무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조절에 참여해야

업계의 최대 당면과제인 돼지 생산조절이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장부상으로는 돼지가 줄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것 하고 분산시키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양돈

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안정적인 양돈경기를 위해서는 서로 앞장서서 모든 감축을 실시해야 되는데, 역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고 말하는 정헌우 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업자나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부류라고 한다.

“여러가지를 분석해 봐도 돼

지감축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군요. 물론 저희 회원들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축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계의 흐름에 따라야 하는데 역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회원가입을 권유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 강조하는 전창수 지부장은 양돈에 관한 모든 일은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

금년에도 파리, 바퀴 박멸엔 쿠펙스입니다.

퍼메스린제제

쿠펙스

같은 퍼메스린제제라도 이성질체의 비율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쿠펙스는 시스(cis) 25%와 트랜스(Trans) 75%로된 퍼메스린과 특수부형제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효과, 지속성, 안전성이 탁월합니다.



농수지수 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면구갈리227 ☎수원 ⑧3423/4